휩쓸려 가고… 쌓이고… 파이고… 장마가 물러간 29일 자연형하천정화사업 구간인 광주천 중·상류 곳곳에 폭우로 유실되거나 파헤쳐진 생채기가 드러났다. 집중호우로 유실된 자연석 호안(왼쪽)과 시멘트·화강감으로 조성된 바닥이 20m 이상 사라지고 토사가 쌓인 둔치(가운데). 오른쪽은 50cm 이상 파여나간 자전거도로 옆의 시멘트 바닥.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천 폭우피해 인공구조물에 집중

자연친화형 복구 필요하다

전문가들 "자연 물길 감안, 인공시설물은 피해야"

최근 광주지역의 집중호우로 인해 광주천 자연형하천정화사업구간 곳곳이 파괴되거나 유실되면서 재발을 막기 위한 면밀한 조사와 구간별 특성을 고려한 자연친화적 복구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피해는 주로 하천 둔치나 호안 등에 조성된 인공시설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은 복구과정에서 자연적인 물길을 감안하고 인공시설 설치를 가급적 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광주시도 이상기후에 따라 수해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 시급한 호안 정비를 제외한 둔치 내 시설복구와 관련 시민단체나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피해실태**=본보가 장마가 끝난 29일 오후 광주천 일대를 조사한 결과 이번 수해로 인해 광주천의 상류와 중류지역은 곳곳에 토사가 쌓이거나 물길이 바뀌는 등의 변화가 있었다. 인위적으로 자연석을 쌓은 호안 일부분이 쓸려나갔으며, 일부 자전거도로나 블록으로 조성된 쉼터 등은 곳곳에서 20~30m 이상 유실되기도 했다.

또 시가 12억원을 들여 설치한 음악분수도 이번 수해로 떠내려갔으며, 이 인근에 설치된 수변무대도 토사에 묻혔다. 시 관계자는 "이번 수해로 인해 광주천에서 발생한 피해는 12억원 상당이며, 이는 광주천 자연형하천정화사업 시공사에서 모두 부담하기로 했다"며 "시급한 사안을 제외하고 시민단체와 함께 현장을 둘러본 뒤 복구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인**=이번 피해의 근본원인은 지난 7일과 16일 각각 196㎜, 132㎜에 이른 기록적인 폭우였다. 다만 시민단체나 전문가 등은 하천을 정비하면서 자연 물길이나 둔치의 식생 등을 충분히 고려했다면, 이 같은 피해를 최소화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3일 간 광주천 일대에서 폭우피해조사를 벌인 '광주천 지킴이 모래톱'은 보고서에서 "호안, 둔치, 시설물, 보 등 각 분야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 인위적으로 설치한 곳에 피해가 집중됐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며 "특히 블록으로 조성된 공간은 거의 모든 부분이 파헤쳐졌으며 수생식물이 없는 자연석 호안, 수중이나 둔치의 불필요한 시설물 등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됐다"고 강조했다.

◇**복구는 어떻게**=광주시는 일단 무너져내리거나 자연석이 휩쓸려간 호안에 대해서는 안전 문제 등을 감안, 서둘러 복구할 예정이다. 그러나 토사가 쌓여있거나 일부 유실된 둔치는 당분간 그대로 두고 시민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최대한 자연 식생을 고려해 복구작업을 시작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도시 내 하천을 시민들이 찾고 즐길 수 있도록 최소한의 인공시설물을 설치하면서 가급적 하천 생태에 적합하게 복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선대 환경공학과 이성기 교수는 "물길이나 생태 등을 충분히 감안했으면 피해규모가 이렇게 늘어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피해 지점을 면밀히 조사하고 각 구간별 특성을 감안해 복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2004년 12월부터 700억원의 예산을 투입, 올해 말 완공을 목표로 광주천 자연형하천정화사업을 추진해왔다. 주요 사업은 광주천의 유지용수 확보를 통한 수질개선과 생태복원, 교량 경관개선 등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영암 산림조합 납품 비리 수사

검찰, 비자금 조성 의혹도

검찰이 영암군 산림조합의 사업추진 과정에서 납품 비리 의혹을 잡고 수사에 나섰다.

29일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최길수)에 따르면 최근 검찰은 영암군 산림조합을 압수수색해 회계 관련 장부와 계약서, 지출결의서 등을 압수했다. 검찰은 산림조합이 나무 등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대금을 부풀려 받거나 일부 직원들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실제 위법성 여부를 조사 중이다.

또 이 사건은 광주지검이 수사에 착수하기 전 목포지청에서 지난달까지 기초 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져 해당 산림조합의 사업 전반에 걸친 비리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전남에서는 2006년 장성군 산림조합의 조합장과 조합원들이 짜고 공사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다 적발됐으며, 지난해에는 영광군 산림조합이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조폭 낀 사기도박단 15명 검거

광주경찰, 6명 영장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9일 모텔 등에서 도박장을 운영하고 도박빚을 갚지 않는다며 협박한 광주 모 조직폭력배 홍모(34)씨 등 6명에 대해 상습도박죄 및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정모(38)씨 등 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광주시내 모텔 등에 도박장을 차려 놓고 도박 전문 '선수'를 고용해 강모(여·37)씨 등 3명으로부터 1억8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강씨가 도박빚을 갚지 않자 강씨가 운영하는 유흥업소를 찾아가 행패를 부리고 600만원 상당의 공짜 술을 마신 혐의도 받고 있다. /이종행 기자 golee@

산후 우울증 30대 女 아이 안고 투신 자살

29일 오전 9시25분께 광주시 서구 농성동 모 아파트 13층에서 A(여·30)씨와 딸(1)이 떨어져 숨졌다. 주민들은 "A씨가 아이를 껴안고 13층 창문틀에 앉아 있어 '위험하다'고 소리쳤다"며 "잠시 후 A씨가 아이를 놓더니 곧바로 뛰어 내렸다"고 말했다.

경찰은 CCTV를 분석한 결과 A씨가 오전 8시45분께 아파트 정문으로 들어왔고 2분 뒤 승강기를 타고 13층으로 올라가는 것을 확인했다. 당시 현장에서 A씨의 신분증이 발견되지 않아 신원파악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날 오후 A씨의 언니(37)가 가출신고를 위해 농성지구대를 방문하면서 A씨의 신분이 밝혀졌다.

경찰은 숨진 A씨가 출산 직후 우울증세를 보여왔다는 가족들에 말에 따라 자신의 처지를 비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수억원대 짝퉁 비아그라 판매한 30대

경찰에 광고 메시지 보내 '덜미'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수억원대의 가짜 비아그라를 판매한 30대가 경찰에까지 광고용 메시지를 보내는 바람에 덜미가 잡혔다.

전남지방경찰청 보안과는 29일 김모(39)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A(41)씨 등 공범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지난 1월부터 경기도 고양시 모 오피스텔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미국산 정품 비아그라·씨알리스를 판다'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뒤 가짜 약품 3만알을 팔아 1억5천만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범행은 무차별적으로 발송한 광고 메시지 때문에 결국 꼬리가 잡혔다. 전남경찰청 소속 강모(43) 경사는 우연히 메시지를 받은 뒤 직접 약품을 구입, 국립과학연구소에 성분감정을 의뢰해 가짜인 것을 확인하고 이들을 검거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농촌 돌며 빈집털이 부부 절도범 검거

화순경찰은 29일 농촌 빈집을 돌며 금품을 훔친 임모(38)씨 부부를 절도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이들은 지난 27일 낮 화순군 청풍면 A씨 집 등 2가구에 침입해 귀금속과 현금 등 18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화순=조성수기자 css@

"비행기에 폭탄" 장난전화 거액 배상

쌍나팔

○…"항공기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장난전화를 한 10대 청소년들이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돼 향후 장난전화가 근절될지 주목.

○…대한항공은 29일 A군(15)과 B군(17), 이들의 부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서울남부지법 이은희 판사가 최근 A, B군 측이 각각 700만원을 지급하는 조정안을 낸데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조정이 성립됐다고 발표.

○…A, B군은 각각 지난 1월14, 27일 대한항공에 전화를 걸어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협박, 예정시간보다 늦게 비행기를 이륙시킴으로써 항공사 측에 각각 1천179만원, 1천68만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 /연합뉴스